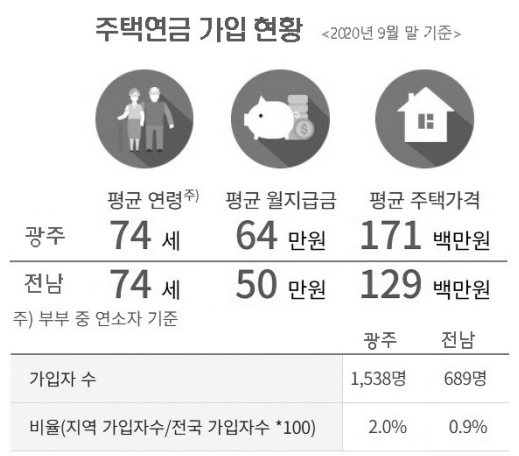


전남, 싼 집값에 주택연금 지급금 전국 최하위

지난해 9월 기준 광주 1538명·전남 689명 가입...전국 2.9% 수준
월 지급액 광주 64만원으로 광역시 중 꼴찌·전남 50만원 2년째 최저
집값 광주 1억7100만원·전남1억2900만원...전국 11번째·17번째

지난해 전남 주택연금 지급금이 전국에서 세 번째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낮은 주택가격 때문에 지급금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 주택연금 가입자는 2227명으로, 전년보다 14.1%(275명) 증가했다. 광주는 1372명에서 1538명으로 12.1%(166명) 늘었고, 전남은 580명에서 689명으로 18.8%(109명) 증가했다. 전국 누적 가입자는 7만8379명으로, 전년(7만1034명)보다 10.3%(7345명) 증가했다. 광주·전남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지만 여전히 3%도 되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가입자의 3분의 1(33.4%)은 경기(2만6156명)에 몰려있고, 서울(2만2399명), 부산(6492명), 인천(4767명), 대구(3646명), 경남

(2935명), 대전(1929명) 순으로 높았다. 광주 가입자는 전국에서 8번째를 차지했고, 전남은 제주(315명)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적었다. 지난해 광주·전남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각각 64만원, 50만원을 월 평균 받고 있었다. 전남 지급금은 전년에 이어 지난해도 최저를 기록했다. 전남 월 평균 지급금은 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만원(2.0%) 상승했다. 광주 지급금도 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만원(1.6%) 올랐다. 월 지급금 인상은 대전(4%)·강원(3.5%)에 이어 전남이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지급금은 101만원에서 102만원으로 1만원(1.0%) 상승했다. 평균에 비해 광주는 38만원 적었고, 전남은 52만원 모자라다. 주택연금 지급금이 가장 많은 곳은 평균 주택가



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었다. 서울 월 평균 지급금은 13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만원(1.5%) 올랐다. 서울에 이어 경기(106만원), 제주(91만원), 부산(88만원), 세종(84만원), 대구(81만원), 인천·대전(각 78만원), 울산(75만원) 순으로 높았다. 광주는 전국에서 10번째 수준인데, 8대 특·광역시 가운데는 가장 적었다.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였고, 전북(55만원), 경북(57만원), 강원(59만원), 충북(60만원), 충남(62만원), 경남(6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평균 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은 광주·전남 모두 74세 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72세)보다 2살 많았다. 광주와 전남은 강원도와 함께 가입자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전년 평균 연령과 같았다. 광주와 전남은 평균 주택가격이 각각 1억7100만원, 1억2900만원으로 전국 11번째, 17번째에 들었다. 하지만 두 지역 인상은 세종(5.9%), 대전(4.6%), 광주(3.6%), 강원(2.7%), 전남(2.4%) 등 상위권에 포함됐다. 주택공은 오는 6월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민사 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상에 입금하는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한다. 또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출시해 주택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탁방식은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년층의 추가소득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주택공은 기대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안터지는 이유 있었네

방송통신설비 33.3% 부적합
광주 22개 중 5개...22.7% 불량

전남 방송통신설비 3분의 1이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적합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5번째로 높았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통신설비 적합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통신설비 516개 중 26.2%에 달하는 13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 있는 27개 방송통신설비 가운데 33.3%에 해당하는 9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설비 비율은 대전(41.2%)이 가장 높았고, 서울(35.9%), 경기(35.2%), 강원(34.5%), 전남 순으로 높았다. 광주는 22개 가운데 5개가 부적합 설비로, 그 비율이 22.7%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는 9번째로 높다. 전남에 이어서는 충북(28.6%), 인천(25%), 경북(23.1%), 광주(22.7%), 경남(19.4%), 충남(18.5%), 부산(11.1%), 울산(10%), 전북(8.3%), 대구(5.6%) 순이었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부적합 방송통신설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동통신 3사 중 LG가 부적합률 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KT 24%, SK 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들은 38%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지역별 편차를 시급히 개선해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재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민국 농할' 할인 농산물 확인하세요

대형마트 다음달 3일까지 최대 1만원
달걀 1인 1판 구매 제한은 유지

주요 농축산물을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농할감시다' 행사가 28일부터 설 명절까지 이어진다.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수급난을 겪고 있는 달걀 구매 제한은 대형마트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8일부터 '대한민국, 농할감시다' 행사를 전통시장, 중소·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직거래매장, 생협, 지자체 및 공공기관 쇼핑몰 등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대형마트 5개사(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중소마트 4개사(메가마트, 서원유통, 로마켓, 삼주국민마트) ▲온라인 몰 8개사(마켓컬리, 11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오아시스마켓, 티몬, CJ) ▲지자체·공공기관 쇼핑몰 8개사(우체국, 해남미소, 남도장터, 이지웰, 포스몰, 농사랑, 거시기장터, 사이소)가 유통사로 참여한다.

각 유통사로부터 발급받은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구매할 경우 최대 1만원까지 20% 할인을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세계포인트 적립 고객에게 달걀과 닭고구마, 간마늘, 표고버섯, 싹 채소, 고추, 황제 버섯 등 6개 품목을 20% 할인한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



대형마트 (5곳)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중소마트 (4곳)	메가마트, 서원유통, 로마켓, 삼주국민마트
온라인 몰 (8곳)	마켓컬리, 11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오아시스마켓, 티몬, CJ
지자체·공공기관 쇼핑몰 (8곳)	우체국, 해남미소, 남도장터, 이지웰, 포스몰, 농사랑, 거시기장터, 사이소

인물에도 적용된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동안 농할 행사를 열고 엘포인트 멤버십 회원에게 농산물 12개 품목을 20% 할인 판매한다. 행사 품목은 달걀과 양파, 감귤, 선초, 감자, 고구마, 대파, 양배추, 브로콜리, 고추, 오이, 버섯 등이다. 양파는 오는 31일까지만 행사 할인이 적용된다. 대형마트의 달걀 구매 제한은 유지돼 소비자 1인당 1판씩만 살 수 있다. 앞서 지난 15~27일 대형마트들은 긴급 농할 행사를 열고 달걀과 무, 배추를 할인 판매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모발건강 집에서 관리해요" 광주신세계를 찾은 한 고객이 8층 생활전문관에서 'LG프라임 메디케어' 제품을 사용해보고 있다. 최근 홈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탈모 예방을 위한 가전기기도 출시됐다. <광주신세계 제공>

"공익직불금 신청 하기 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하세요"

농관원 전남지원, 3월까지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오는 3월까지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등록 대상인 변경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나 농지 소재지, 농지의 임차기간 종료, 농지 매입, 타인 농지 임차 계약,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곤충 사육규모 등이다.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홈페이지(agrix.go.kr), 전화(1644-8778)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는 건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강석이의 유머인생
밤벌레의 행복
이기원 지음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